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나타난 16세기 러프 칼라와 러프 커프스의 미시적 변화 연구

배 수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Exquisite Revolution of the 16th Century Ruff Collar and Ruff Cuffs in the Portraits of Queen Elizabeth I

Soo-Jeong B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0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2010년 12월 10일)

Abstract

The portraits created in the age of Queen Elizabeth I show a very exquisite description about the ruff collar and cuffs representing the notable evolution of periodical costumes from a detailed viewpoint. This thesis analyzes the ruff collar and cuffs of the portraits of Queen Elizabeth I. The method used selects 32 pieces from the portraits of Queen Elizabeth I that are considered excellent depictions of a ruff collar and cuffs, to investigate size, form and decorations. Conclusively, the ruff collar tends to be extremely enlarged and thickened (coinciding with the development of glue) while the cuffs denote the aspect of double cuffs coupled with the turn-back cuffs without a change in size. These traits were widely shown from 1585 to 1587, while after 1588 the ruff cuffs completely disappeared in the portraits of Elizabeth I. At the same time, the change of a ruff collar was remarkable, the collar being in the erect position behind the head (with the use of supporters), of a consistent thickness and decoration of elaborate lac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7th century the earliest change was in cuffs followed by collars. This research is a helpful guide to detect the relatively exact date of portraits not definitively identified in the latter part of the 16th century and to observe the microscopic evolution of costumes in the latter part of the 16th century.

Key words: Elizabeth I, Ruff collar, Ruff cuffs, Exquisite revolution; 엘리자베스 1세, 러프 칼라, 러프 커프스, 미시적 변화

I. 서 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Tudor; 1533~1603년) 여왕은 미모와 화려한 복식, 건강과 장수, 무적함대의 격파 및 노련한 외교술로 45년간 영국의 위상을 높이

고 부강한 나라로 변모시킨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다(모건, 1984/1994). 그녀가 1558년 스물다섯의 나이로 여왕에 즉위했을 때 영국은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국내에서는 성공회와 가톨릭의 분열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고, 군대도 국고도 고갈된 힘없는 국가였으며, 국외에서는 교황, 신성로마제국,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등 국제 가톨릭동맹이 위

[†]Corresponding author
E-mail: sjbae@chonnam.ac.kr

협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군주의 이미지가 국가의 이미지라는 것을 일찍 인식한 여왕은 화려한 의복과 몸치장으로 외국의 대사를 접견하고 대중들 앞에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창조하고, 관리하고, 영용화하였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복식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당시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이미 르네상스 사상을 꽃피운 나라들로써 르네상스 복식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영국은 이들보다 뒤늦게 르네상스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식에 있어서도 재단법이나 봉제법이 낙후되어 있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여왕은 여타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패션에 있어서도 유럽 여러 나라들을 추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탈리아인이나 프랑스인 의복 제작자를 고용할 수 있었음에도 여왕의 의복 제작자는 언제나 영국인이었고, 항상 외국의 새로운 의복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전된 의복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Arnold, 1988).

이와 더불어 여왕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신의 초상화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563년 국무대신인 William Cecil 경을 통해 초상화규제칙령(Royal iconography)을 발표하였다(서머릿, 1991/2005). 따라서 이 이후에 그려진 초상화는 모두 왕실에서 제시한 초상화의 원형을 따라야 하였는데, 그 원형이 된 것은 1572년경에 이탈리아 화가 Federico Zuccaro가 제작한 <The Darnley portrait>였다. 그러나 이 칙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1596년 'A Privy Council'에서 여왕의 늙어 보이거나 허약해 보이는 부적절한 초상화는 모두 불태우도록 명령함(Weir, 1998)으로써 현존하는 여왕의 초상화들은 화가의 특성이 없어서 누구의 작품인지를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서 16세기 영국 회화의 선구적인 연구는 Strong(1969)에 의한 『The English Ic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 제시된 385점의 Tudor와 Jacobean 시대의 초상화 중에서 약 70여 점의 작품만이 화가의 사인과 제작 년대에 대한 기록이 있고 나머지 작품의 분석에는 오로지 전문가의 판단만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작품들은 'attributed to~'라고 하여 화가를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16세기 영국 회화는 화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도 화가의 사인 및 년도 표기가 없는 작품

이 많아서 화풍의 분석으로 화가 및 제작 년도를 추정하고 있다(Norris, 1997). 이외에도 Arnold(1988)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에 관한 연구 및 Ashelford(1988)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복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이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하여 튜더 왕권의 이미지를 분석한 허구생(2004)의 연구와 상징적인 측면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 요소를 분석한 배수정(2000)의 연구 및 중세부터 19세기까지 광범위하게 칼라에 대해 고찰한 박혜령(1986)의 연구와 근세와 근대에 걸친 칼라의 구성적 특징에 대해 다룬 송설옥(1998)의 연구가 있다. 또한 러프 칼라의 유형 분류 및 현대패션에의 응용 등 러프 칼라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윤선미, 배수정(2002a, 2002b)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16세기 러프 칼라와 커프스를 같은 복식 조형적 측면에서 조망하여 미시적인 변화를 추적한 연구는 사실상 인물이 묘사된 회화의 년대 추정 및 복식 변화의 세부적인 과정 고찰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왕 즉위 이후부터 여왕이 사망한 1603년까지 여왕의 초상화는 주로 궁정화가들에 의해 제작되었고, 복식의 세부적인 부분 특히, 러프 칼라와 러프 커프스가 매우 정교하게 묘사되었는데, 이를 추적해 보면 연도별로 미시적 차원의 흥미로운 복식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시기가 16세기에서 17세기로의 전환기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복식 요소가 다음 세기, 혹은 다른 스타일로 변환되는지에 대한 미시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엘리자베스 1세의 재위기간에 제작된 초상화를 중심으로 러프 칼라와 러프 커프스의 미시적인 변화를 고찰하여 16세기말 복식 변화의 세부적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여왕에 즉위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많은 내·외국인 화가들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는데, 당시의 영국 궁정회화는 유럽의 궁정회화와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묘사된 의복과 장신구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1558년부터 1603년 사이에 제작된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중 칼라와 커프스가 정교하게 묘사된 32점의 초상화(펜화와 드로잉 포함)를 선정하여 러프 칼라와 커프스의 크기, 형태, 장식 등의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자료는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및 16세기 영국 궁정회화 관련 서적 및 복식사

관련 서적, 논문, 인터넷 등에서 발췌한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II. 16세기 영국의 사회적 배경과 러프의 발생

1. 사회·문화적 배경

영국의 르네상스는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보다 한 세기 늦게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섬나라인 지리적 여건도 있었겠지만, 이 보다는 영국의 문화가 아직은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나자 영국의 르네상스는 유럽 대륙보다 더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다. 특히 다소 무종교적 경향이 있었던 이태리 르네상스와는 달리 영국의 르네상스는 종교적이고 윤리적 이었다(Badawi, 1981).

르네상스가 낳은 가장 큰 사상은 인문주의(Humanism)였는데, 영국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네덜란드의 위대한 인문주의자 Desiderius Erasmus의 크리스천 휴머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영국 르네상스의 거두인 Thomas More를 필두로 하여 영국 인문주의자들 중에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는 없을 정도이다(도건, 1984/1994). 이러한 인간중심적인 철학과 지식을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르네상스를 더욱 융성하게 만든 것은 인쇄술의 발전이었다. 이에 따라 고전문학과 외국문학, 과학서적 등이 번역되어 일반에 널리 보급되었고 점차 중세적인 것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 영국민들에게는 후세 사람들이 ‘즐거워 영국(merry England)’이라고 회고하게 될 환희와 명랑함, 순진함과 태평스러운 정신이 있었다. 시인이었던 John Milton은 이 시기를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힘센 남자처럼, 영국의 깨트릴 수 없는 자물쇠를 열고 그 스스로 눈을 뜬 고상하고 강력한 나라’라고 회고하였다(Gassner, 1963). 열렬한 애국심의 고양도 영국 르네상스의 특징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애국심은 1588년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름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배수정, 1988). 영국은 중세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유럽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자국의 역사와 전통을 미화하여 강조함으로써 영국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 궁정의 분위기 역

시 수많은 정치적 음모와 계략에도 불구하고 밝고 명랑하였다(Ferguson, 2006). 당시의 궁정인들은 학문, 미술, 시, 음악, 춤에 대한 취미를 가졌고, 화려한 복식으로 자신을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였다. 당시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엘리자베스 시대 궁정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걸치레와 화려한 의식을 좋아한 것이었다(Badawi, 1981). 그러나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반드시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당시 엘리자베스 시대인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시각적인 이미지 즉, 상징으로 나타내기를 즐겨하여 문학과 시, 연극, 복식 등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16세기 영국 미술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수많은 외국인 화가들이 영국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들이 영국 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1532년 Hans Holbein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외국인 화가들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영국에 들어왔다. 당시의 교사이자 예술가인 Henry Peacham(1576~1643)은 이 시기의 영국 화단이 저조한 이유는 귀족과 군주들이 외국인 화가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Hearn, 1995). 그러나 당시에 Nicholas Hillard, Issac Oliver, George Gower, Sir William Segar, Robert Peake, John Bettes 등의 영국 화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 현존하는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는 주로 이 영국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Peacham의 주장이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이 시기 영국 화단의 경향이 국내 화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 유럽 궁정회화를 배워오게 하기보다는 이미 훈련된 외국 화가들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배수정, 2000).

이처럼 영국의 초기 르네상스가 독창적이기 보다는 학구적이고 종교적이었지만 문화의 새로운 기틀을 조성하고, 미지의 세계에 눈을 뜨으로써 독창적인 예술가들이 활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중대한 발명, 대륙의 발견과 탐험, 새로운 과학의 발전, 종교개혁 및 새로운 경제세력의 부상 등으로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시도된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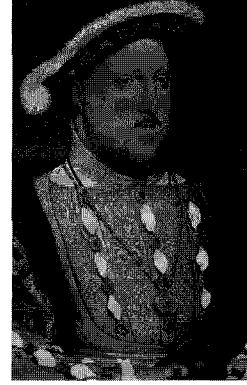
2. 러프 칼라와 러프 커프스의 발생과 전파

일반적으로 러프 칼라의 기원은 네크라인이 깊게 파인 16세기 초기의 남성 더블릿(doublet)의 목둘레에 드러난 셔츠 깃의 작은 프릴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

림 1>에 제시된 것처럼 14세기 말과 15세기 초기에 그려진 도판에는 선명한 형태의 러프 칼라가 묘사되어 있으므로, 이는 16세기에 최초로 고안된 복식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이후 러프 칼라는 한동안 복식사에서 사라졌다가 16세기 초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1500년경에 제작된 <그림 2>의 웨일즈의 왕자 Arthur의 초상화에 묘사된 것처럼 미미하게 나타난다. 이 이후 1530년대에 접어들어 더불어의 목둘레가 점점 높아지자 셔츠의 목둘레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그림 3>-<그림 4>와 같은 스탠딩 형태로 변화되었다(윤선미, 배수정, 2002b).

한편 커프스의 발전은 러프 칼라보다 좀 늦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그림 2>에서는 커프스를 볼 수 없고, 1530년경인 <그림 3>에서부터 커프스가 나타나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데, 일단 러프

칼라와 매치되는 러프 커프스가 등장하고 나서는 매우 빠른 발전 속도를 보였다. <그림 4>-<그림 5>의



<그림 3> Henry VIII, 1536
자료출처: Hearn. (1995). p. 43.



<그림 1> Le Roman de la Rose, late 14C-early 15C
자료출처: Boucher. (1987). p. 196.



<그림 4> Edward VI, 1546
자료출처: Hearn. (1995). p. 50.



<그림 2> Arthur, Prince of Wales, 1500
자료출처: Hearn. (1995). p. 36.



<그림 5> Elizabeth I when Princess, 1546
자료출처: Hearn. (1995). p. 78

도판을 보면 러프 칼라는 매우 미미한 반면, 안에 입은 셔츠나 슈미즈의 소매 끝에 달린 커프스는 상당히 정교하고 크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이 시기까지는 커프스가 러프 칼라와 마찬가지로 의복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복에서도 마찬가지로, 16세기 초기의 낮게 파인 네크라인 가장자리에 드러난 슈미즈(chemise)의 깃 장식이 점차 러프 칼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영국 여성복에 러프 칼라가 도입된 시기는 유럽 대륙보다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에 제시된 1546년경의 엘리자베스 1세의 공주 시절 초상화를 보면 네크라인 부분에 러프 칼라의 초기 형태인 작은 레이스 장식을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유럽 대륙에서는 보다 진행된 형태의 러프 칼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같은 초상화에서 커프스는 러프 칼라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1550년 이후에는 남성의 더블릿과 같이 여성의 가운도 하이 네크라인으로 변화되었고 러프의 주름도 더 커지고 직경도 확대되었다.

러프 칼라와 커프스는 처음에는 스페인 패션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의복에서 분리된 기성품 러프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곳은 이태리였고, 분리된 러프의 편리함 때문에 1560년 무렵에는 곧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다(뵐, 1996/2000). 특히 1564년경 네덜란드에서 녹말풀이 개발되자 러프의 크기는 급속도로 커졌고, 풀을 먹이면서 색을 첨가하여 흰색뿐만 아니라 노란색, 빨간색, 자주색 등이 있었으며, 보통은 흰색과 노란색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러프의 연결은 고리, 단추, 끈으로 고정하였다(박혜령, 1986). 16세기 후반 러프 칼라는 직경 10인치 이상으로 거대하게 확대(Wilcox, 1948)되었으나 커프스는 적정 크기 이상으로 거대하게 제작된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비록 러프 칼라의 발생이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어도 손목에 거대한 러프가 있는 불편함은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러프 칼라의 국가별 선호도 약간 달랐다. 프랑스에서는 목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여 V자 형태로 파인 메디치 칼라를 선호하였고, 스페인에서는 하이 네크라인의 둥근 러프 칼라를 선호하였다. 영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하여 착용하다가 엘리자베스 1세 말기에 칼라가 앞 중심에서 벌어져서 가슴 부분을 노출한 퀴엘리자베스 칼라가 유행하였다(윤선미, 배수정, 2002b). 이처럼 16세기에는 러프 칼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요소에서 복식에 국가별 특징이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Boucher, 1987). 따라서 이전 세기와 달리 16세기는 복식의 형태와 요소를 통해 국가별 복식의 특징을 구별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III.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나타난 러프 칼라와 러프 커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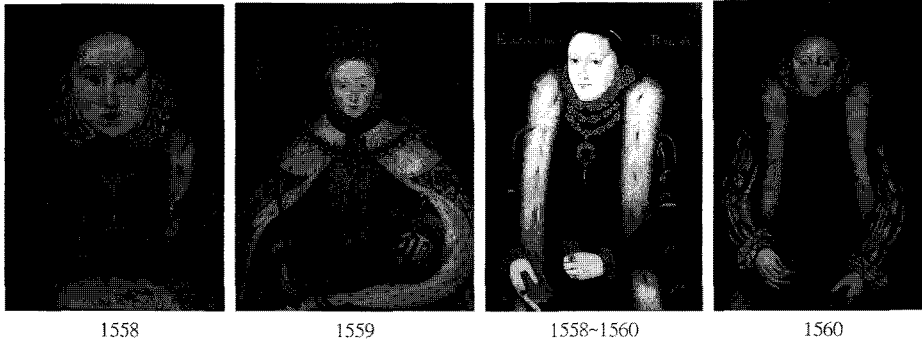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위기간인 1558년부터 1603년 사이에 제작된 초상화는 상당히 많았으나, 1563년과 1596년의 초상화 규제 때문에 많은 초상화가 불태워지거나 파괴되었다. 현존하는 여왕의 초상화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The Darnley portrait'의 표준형 패턴에 맞추어 그려져 여왕의 나이와 관계없이 대부분 아름답고 젊은 여성의 얼굴로 묘사되었다. 45도 각도로 약간 돌린 여왕의 얼굴은 거의 모든 초상화에서 예외가 아니며 얼굴 표정도 거의 유사하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주름과 세월의 흔적이 배제된 채로 항상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된 특징이 있다(배수정, 2000).

본 장에서는 1558년부터 1603년 사이에 제작된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중 러프 칼라와 커프스가 정확히 묘사된 32점의 초상화를 1기, 2기, 3기로 나누어 제작 연대순으로 살펴보고, 그 전반적인 변화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1기: 1558~1580년

이 시기의 연구대상 초상화는 11점이 해당되는데, 여왕 즉위 초기에 제작된 1560년 이전의 초상화는 매우 소박하고 경건한 형태와 색의 의복을 착용한 상태로 묘사되었다. 가운의 디자인은 매우 단순한데 이것은 엘리자베스가 젊은 시절 단순한 옷을 즐겨 입었다는 공주의 가정교사 Roger Ascham의 설명과도 일치한다(Arnold, 1988). 또한 이 시기는 여왕 초상화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초상화의 크기가 작고 여왕의 얼굴 묘사가 정면인 경우가 많다. 장신구도 소박하거나 같은 것을 착용한 예가 많고, 러프 칼라와 커프스도 규모가 작고 장식이 화려하지 않다. <표 1>을 보면 주름이 여러 겹 자연스럽게 잡혀있는 러프 칼라와 커프스의 가장자리에 Black work 장식이 되어 있고 러프 칼라의 앞 중심이 트여 있는데, 이는 안에 착용한 슈미즈의 깃에서 러프 칼라가 아직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1558~1560년 사이에 제작된 초상화



156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의복의 색과 장식이 화려해지고, 러프 칼라와 커프스의 크기와 두께가 증가하며 사용되는 재료도 면, 마직물뿐만 아니라 얇은 레이스 등으로 다양해진다. <표 2>를 보면 1563a의 초상화는 가운 안에 입은 슈미즈의 깃이 러프 칼라로 연장된 것이 확연히 보이지만, 1563b의 초상화는 러프 칼라의 앞 중심이 닫힌 상태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러프 칼라의 분리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1570년 이후의 초상화에 묘사된 러프 칼라와 커프스

는 확연히 직경이 넓어지고, 두 배 이상 넓은 주름으로 두께가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러프 칼라와 커프스가 자아내는 리드미컬한 주름은 보다 규칙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2> 상에서 보았을 때 1563년을 전후하여 러프 칼라가 슈미즈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프 커프스 역시 1563년을 전후하여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 있고, 이 이후 러프 커프스의 크기는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된다. 커프스의 분리 시점은 아

<표 2> 1560~1580년 사이에 제작된 초상화



마도 러프 칼라의 분리 시점과 유사하지 않을까 유추된다. 왜냐하면 러프 칼라의 앞 중심이 닫힌 상태로 변화된 것은 칼라의 분리를 의미하며, 당시의 영국인들이 세탁의 편리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이므로 커프스도 칼라와 동시에 분리하여 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2기: 1581~1590년

이 시기의 연구대상 초상화는 15점이 해당된다. 이 시기는 러프 칼라의 직경이 어깨넓이로 확연히 커지면서 두께는 오히려 얇아졌고, 전 시기보다 더욱 얇은 소재와 레이스의 사용으로 장식이 화려해졌다. 즉, 러프 칼라의 크기와 장식 모두 상당히 발전하였던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표 3>을 보면 1588년의 초상화를 전후하여 러프 칼라의 뒷 목 부분이 높게 서게 되고, 1590년을 전후하여 앞 중심이 갈라져 목과 가슴을 드러내는 부채모양의 퀴엘리자베스 칼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1590년 이전의 초상화에는 아주 초기의 것을 제외하고는 러프 칼라의 앞 중심이 갈라져 있지 않았으나, 이 이후 앞 중심이 갈라지면서 뒷 목 부분을 세우는 퀴엘리자베스 칼라로 전환된 것을 확연히 볼 수 있다. 뒷 칼라 부분을 세우기 위해 *supportas* 혹은 *rebato(rabato)*라고 불리는 부채모양의 철사 지지대를 사용하였다(서머셋, 1991/2005). 1590b 초상화에서는 둥근 러프 칼라의 앞 중심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고, 1590c 초상화에는 퀴엘리자베스 칼라와 더불어 작은 러프 칼라가 목둘레에 중복되어 나타난 더블 러프 칼라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러프 커프스는 1580년을 전후하여 턱백 커프스와 동시에 나타나는 더블 커프스 현상을 보인다. 특히 얇은 레이스로 제작된 턱백 커프스와 러프 커프스가 동시에 착용되어 착용자의 손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으며,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예쁜 손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곤 하였다(서머셋, 1991/2005). 여왕의 모든 초상화에 나타난 손의 위치를 자세히 보면 매우 정교하게 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지는 물론이거니와 책, 장갑, 장미, 깃털부채, 십자가를 얹은 보주(寶珠), 왕홀(王笏, *scepter*), 보석 등을 손 부근에 배치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손에 시선이 가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러프 칼라 못지않게 커프스의 묘사에도 매우 공을 들인 흔적을 볼 수 있다. 커프스에 사용된 레이스의 자세한 표현이라든지, 더블 커프스의 정교한 묘사는 커프스의 미세한 변화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1580년을 전후하여 턱백 커프스와 러프 커프스가 동시에 나타나며, 1590년 이후에는 러프 커프스가 사라지고 거의 턱백 커프스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러프 칼라의 퀴엘리자베스 칼라로의 전환과 턱백 커프스로의 전환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3기: 1591~1603년

이 시기의 연구대상 초상화는 6점이 해당된다. 이 시기 러프 칼라는 대부분 퀴엘리자베스 칼라로 전환되었다. 물론 이 시기의 다른 인물의 초상화에는 스페인식의 둥근 러프 칼라가 여전히 착용되고 있었지만, 여왕의 초상화에는 1590년 이후의 초상화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젊었을 때의 외모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여왕의 모습은 당시 영국을 방문했던 독일인 법률가 Paul Hentzner의 1598년 영국 여행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뒤이어 위엄있는 여왕의 모습이 나타났다. 얼굴은 타원형에 매력적이었으나 주름이 많았다. 눈은 검고 작았으며 약간 매부리코에 입술은 얇았다. 적갈색 가발 위에 작은 왕관을 쓰고, 잉글랜드 처녀들이 결혼 전이나 하고 다니는 차림으로 가슴을 온통 드러냈다. 의복에는 대형 다이아몬드와 갖가지 보석이 박혀 있었고, 흰히 드러난 가슴 위로 두른 술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해 보이는 거머를 정교하게 짜 넣었다. 손이 가늘고 길었으며,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당당한 풍채에 화법은 온화하고 정중했다(Hentzner, 1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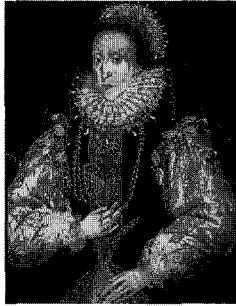
<표 4>에 제시된 6점의 초상화 모두 퀴엘리자베스 칼라가 묘사된 것은 말년에 여왕이 Hentzner가 묘사한 것과 유사한 복식을 즐겨 착용하였다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이 시기는 여왕의 나이가 60세 정도에 달하는 때였으므로 실제 여왕의 모습은 이보다 훨씬 나이 들고 병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철저하였던 여왕은 초상화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포장하고 미화하였으며, 여기에 묘사된 러프 칼라와 커프스, 장신구 등은 그 이미지 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퀴엘리자베스 칼라 뒤에 커다랗게 세워진 나비형 배일은 1595년의 초상화 단 한 점만을 제외하고 모

<표 3> 1581~1590년 사이에 제작된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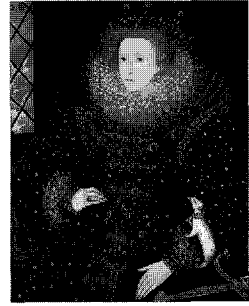
1583



158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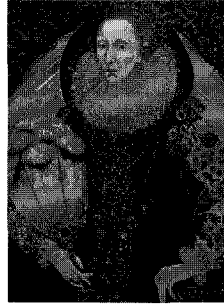
1583~1585



1585



1585a



1585b



1585~1586



1586~1587



1588a



158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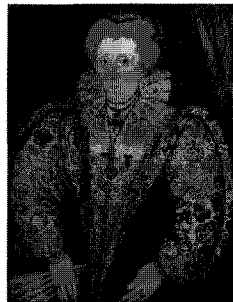
1585~1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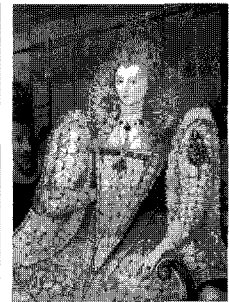
1588~1589



159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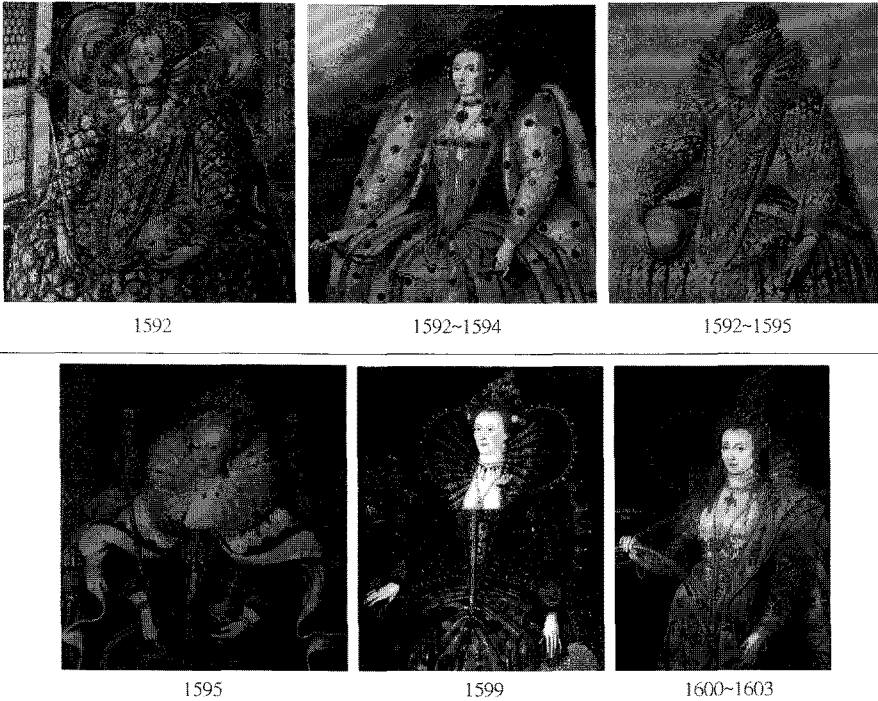


1590b



1590c

<표 4> 1591~1603년 사이에 제작된 초상화



두 예외 없이 묘사되어 여왕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으며, 1600~1603년의 초상화에는 1590c 초상화와 같은 더블 러프 칼라 현상을 보인다. 또한 넓게 레이스로 제작된 턱백 커프스는 17세기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IV. 러프 칼라와 러프 커프스의 미시적 변화

엘리자베스 1세는 45년의 재위기간 동안 Walter Fyshe와 William Jones 두 명의 영국인 의복 제작자를 고용하였다. 치세 초기에는 너무 검소하다 싶을 정도로 검정색 위주의 장식이 없는 소박한 의복을 착용하였으나, 1563년경부터 화려한 의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1567년에는 최신 유행의복 제작이 가능한 외국인 의복 제작자를 고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 그 의복 제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결국 영국이 이태리와 프랑스의 의복 제작기술을 갖게 된 계기는 이미 제작된 의복을 수입해서 착용자의 신체에 맞추어 다시 제작하는 과정에서였다(Arnold, 1995).

이때 들어온 것 중에 러프 칼라의 발전된 제작법과

네덜란드에서 발명된 녹말풀이었다. 여왕의 치세 초기의 러프는 수수한 주름으로 처리된 삼베나 얇은 면(lawn)으로 제작되었으나, 1564년에 네덜란드의 Van der Fleshe 부인이 개발한 녹말풀을 영국에 들여와서 여왕의 러프를 제작하고 자신의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되었다(뵐, 1996/2000).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시기를 나누어 러프 칼라와 커프스의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기를 나눈 근거는 러프 칼라와 커프스의 크기, 형태, 장식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1. 1558~1560년

1558년부터 1560년 사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직후이고, 영국에서의 러프의 발전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여서 러프 칼라와 커프스도 얼굴을 감싸는 정도의 작고 자연스러운 주름이 특징이다. 러프 칼라와 커프스의 가장자리에 Black work가 장식되어 있고 칼라의 앞 중심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안에 입은 슈미즈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러프 칼라 제작

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뽀뽀하게 만들어서 칼라의 형태가 목 부분을 잘 받쳐주는 가에 있었는데, 주로 마직물이나 면직물을 좁게 혹은 넓게 포개어 접어 주름을 만들거나, 이를 맞주름으로 고정시킨 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부채꼴로 주름을 잡은 평평한 원판들을 여러 층 포개어 배열(빈, 1996/2000)한 후 슈미즈의 네크라인에 고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커프스도 거의 유사한 제작방식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슈미즈에서의 분리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소매통의 넓이와 커프스의 크기로 볼 때 이미 슈미즈에서 분리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전체적으로 검은색 의복에 흰색의 칼라와 커프스가 매우 두드러져 보이며, 특히 리드미컬한 주름의 반복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1561~1580년

1561년 이후부터 녹말풀이 도입되기 전인 1563년까지는 옷감의 주름을 잡는 방식으로는 칼라를 뽀뽀하게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름들 사이에 철사를 넣고 가벼운 옷감을 덮어서 두꺼운 러프의 받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빈, 1996/2000), 앞서 언급한 것처럼 1564년 네덜란드의 녹말풀과 발전된 유럽 대륙의 러프 제작기술이 영국에 도입되자 정교하고 규칙적인 주름 제작이 가능해져 영국의 러프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표 2>에서도 1563년 이전의 러프와 이후의 러프가 크기 및 형태에서 확연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1564년 이후의 러프는 크기가 어깨 넓이 중간 정도에 주름이 넓어져 두껍고 장식도 화려해졌으며, 정교하게 제작된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러프 칼라와 커프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러프 커프스의 경우 장식은 칼라와 유사하지만 크기는 일정 크기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 시기부터 러프 칼라와 커프스가 슈미즈에서 분리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는 1579년의 초상화에서 분명해진다. 1579년의 초상화를 보면 가운데 달린 커프스가 있고 그 위에 러프 커프스가 착용된 예를 확실히 볼 수 있다. 따라서 1564년과 1579년 사이에 점차 러프가 슈미즈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584년에 Catherine de Medicis가 분리된 러프에 대한 이태리인의 무역특권을 허락한 기록(빈, 1996/2000)이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어깨 중간 정도 넓이의 두꺼운 러프 칼라와 커프스가 있는 복식의 경우는 대략 1560년에

서 1580년 사이로 시기를 추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1581~1585년

이 시기는 러프 칼라의 크기가 커지고 장식이 화려해진 시기로, 둥근 러프 칼라의 크기는 어깨넓이만큼 커지고 주름의 두께가 두꺼워져 상당한 볼륨으로 변화되었으며, 사용된 소재는 면, 마 이외에도 레이스, 진주, 보석 등이 부가되어 화려해졌다. 역사적으로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반에 등장한 레이스(Harris, 1993)가 러프 칼라와 커프스에 응용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러프 칼라의 가장자리에 장식된 아름답고 정교한 레이스의 부착은 러프 칼라를 착용한 이의 얼굴에 더욱 시선이 모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러프 커프스에도 레이스가 사용되어 의복의 전체적인 조화를 꾀하고 있지만, 러프 칼라에 나타난 것과 같은 직경과 두께의 확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러프 칼라 때문에 식사를 하기 위해 더욱 손잡이가 긴 수저를 주문해야하는 어려움(빈, 1996/2000)을 겪기는 하여도 손사용의 불편함은 최소화 하고자 하는 심리의 반영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가장자리에 레이스가 장식되거나 혹은 장식되지 않은 어깨넓이의 커다란 러프 칼라와 작은 러프 커프스가 복식에 나타난다면 1580년대 전기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1586~1589년

1586년부터는 러프 칼라와 커프스에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러프 칼라는 그 두께가 얇아지면서 옷감 부분이 줄어들고 레이스 부분의 면적이 넓어져 반투명한 상태로 초상화에 묘사되고 있다. 특히 정교하고 다양하게 짜인 레이스로 제작된 러프는 당시 레이스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특히 1580년대 말에는 전체가 레이스로 제작된 러프 칼라와 커프스가 나타나고, 이와 더불어 *supportas*나 *rebato*를 사용하여 러프 칼라의 목 뒷 부분을 세우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1588a와 1588b 초상화는 거의 같은 초상화로 보이지만, 서로 다른 화가가 그린 *Armada portrait*로써 초상화의 배경과 러프 칼라의 레이스, 러프 커프스 부분에 차이가 있다.

러프 커프스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이 시기부터 턱백 커프스와 러프 커프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더블 커프스 현상을 보인다. 특히 턱백 커프스에는 주

로 레이스를 사용하고, 러프 커프스는 기존의 옷감으로 제작된 러프를 사용하여 중복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정교한 레이스로 제작된 얇고 반투명한 러프 칼라와 더블 커프스가 나타나면 1580년대 후기의 복식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5. 1590~1591년

1590년과 1591년 이 짧은 시기 동안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의 둥근 러프의 앞 중심이 벌어져 목과 가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퀴엘리자베스 칼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Hentzner의 기록을 인용하여 언급하였듯이 젊은 여인들처럼 가슴을 노출하기 좋아하였던 여왕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여 이 칼라를 즐겨 착용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본 연구에 제시된 16세기 말기 여왕의 초상화에 묘사된 모든 칼라가 퀴엘리자베스 칼라인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화려한 퀴엘리자베스 칼라에 보석 펜던트나 장미 등을 장식한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커프스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앞 시기에 나타났던 더블 커프스가 서서히 턱백 커프스로 교체되기 시작하였다. 턱백 커프스는 점차 커지고 화려한 레이스를 사용한 반면, 러프 커프스는 크기가 작아져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



어 17세기로의 복식 변화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칼라의 중심이 벌어지고, 턱백 커프스 혹은 더블 커프스가 나타나면 16세기 말기의 복식으로 시대를 추정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6. 1592~1603년





이 시기는 확실히 17세기 복식의 영향기에 접어든 시기로, 러프 칼라는 퀴엘리자베스 칼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대부분의 커프스는 턱백 커프스로 대체되었다. 약간의 러프 칼라와 커프스의 잔영이 1590c 초상화와 1600~1603의 초상화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매우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축소되었다. 러프 커프스는 사라지거나 크기가 축소된 대신 턱백 커프스는 더욱 커지고 정교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퀴엘리자베스 칼라 뒤로 커다란 나비형의 베일이 추가된 점인데, 이는 여왕의 머리 위에 커다란 후광이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것으로써 여왕의 영웅화된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비형 베일과 퀴엘리자베스 칼라, 턱백 커프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로 시대를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5>는 이상에서 다룬 러프 칼라와 러프 커프스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러프 칼라와 러프 커프스의 미시적 변화

년 대	대표적인 도식화	러프 칼라의 변화	러프 커프스의 변화
1558~1560		-크기: 얼굴을 감싸는 크기 -형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러프 -장식: 가장자리 Black work 장식	-크기: 손목을 감싸는 크기 -형태: 단순하며 자연스러운 주름 -장식: 가장자리 Black work 장식
1561~1580		-크기: 어깨넓이 중간 정도의 크기 -형태: 주름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정교하고 규칙적 -장식: 가장자리 레이스 장식	-크기: 전 시기보다 약간 커짐 -형태: 정교하고 규칙적인 주름 -장식: 가장자리 레이스 장식

<표 5> 계 속

년 대	대표적인 도식화	러프 칼라의 변화	러프 커프스의 변화
2기	1581~1585 	-크기: 어깨넓이의 크기 -형태: 주름의 두께가 두껍고 규칙적 -장식: 가장자리 레이스, 진주, 보석 장식	-크기: 전 시기와 같음 -형태: 정교하고 규칙적인 주름 -장식: 가장자리 레이스 장식
	1586~1589 	-크기: 어깨넓이의 크기 -형태: 주름의 두께가 얇아지고 편평해짐(rebato 사용) -장식: 전체적 혹은 부분적 레이스 장식	-크기: 러프 커프스는 전 시기와 동일, 턱백 커프스 보통 크기 -형태: 더블 커프스 -장식: 레이스 장식
3기	1590~1591 	-크기: 어깨넓이의 크기 -형태: 앞 중심이 트인 퀴엘리자베스 칼라 -장식: 레이스, 보석	-크기: 러프 커프스는 작아지고 턱백 커프스 커짐 -형태: 전 시기와 같음 -장식: 레이스
	1592~1603 	-크기: 어깨넓이의 크기 -형태: 이중의 퀴엘리자베스 칼라 -장식: 레이스, 꽃, 보석, 나비형 베일	-크기: 러프 커프스 사라지고 턱백 커프스는 전 시기보다 약간 커짐 -형태: 전 시기와 같음 -장식: 레이스

V. 결 론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영국 복식의 발전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노고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여성 군

주라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복식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 당시에 유럽 대륙의 복식보다 한 단계 뒤쳐져 있던 영국의 복식을 영국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정착시키고, 역으로 퀴엘리자베스 칼라 등은 유럽 대륙에 유행시키

기도 하였다. 이처럼 16세기 후반 영국 복식은 복식사적 연구의 가치가 높다. 본 연구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초상화에 묘사된 러프 칼라와 커프스의 발전 단계를 시기별로 6단계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58년부터 1560년 사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직후 소박한 의복을 착용하던 시기이고, 복식 발전도 유럽 대륙보다 뒤늦은 상태라서 러프 칼라와 커프스도 얼굴을 감싸는 정도의 작고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제작되었다. 여왕의 초상화에 묘사된 칼라의 앞 중심이 벌어져 있어 안에 입은 슈미즈에서 러프 칼라가 분리되지 않은 시기였다. 커프스도 칼라와 유사한 제작 방식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슈미즈에서의 분리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소매통의 넓이와 커프스의 크기로 볼 때 이미 슈미즈에서 분리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1561년부터 1580년까지는 1563년을 기점으로 두 단계로 구분된다. 영국에 네덜란드에서 발명한 녹말풀이 도입되기 전인 1563년까지는 단순히 옷감의 주름을 잡는 방식으로는 칼라를 뾰뚱하게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름들 사이에 철사를 넣어 러프의 형태를 고정하기도 하였으나, 1564년 녹말풀의 도입과 발전된 유럽 대륙의 러프 제작기술이 영국에 도입되자 정교하고 규칙적인 주름 제작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1564년 이후의 러프는 크기가 어깨 넓이 중간 정도에 주름이 넓어져 두껍고 장식도 화려해졌으며, 정교하게 제작된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러프 칼라와 커프스가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러프 칼라와 커프스가 슈미즈에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깨 중간 정도 넓이의 두꺼운 러프 칼라와 커프스가 있는 복식의 경우는 대략 1560년에서 1580년 사이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581년부터 1585년까지는 러프 칼라의 크기가 커지고 장식이 화려해진 시기로, 러프 칼라의 크기는 어깨넓이에 달하고 주름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사용된 소재는 면, 마 이외에도 레이스 등이 사용되었고 여기에 진주, 보석 등이 부가되어 화려해졌다. 특히 러프 칼라의 가장자리에 장식된 아름답고 정교한 레이스의 부착은 러프 칼라를 착용한 이의 얼굴에 시선이 모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러프 커프스에도 레이스가 사용되어 의복의 전체적인 조화를 꾀하고 있지만, 러프 칼라에 나타난 것과 같은 직경과 두께의 확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손사용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심리의 반영으로 보인다. 가장자리에

레이스가 장식된 어깨넓이의 커다란 러프 칼라와 작은 러프 커프스가 나타난다면 1580년대 전기로 복식의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86년부터 1589년까지 러프 칼라는 그 두께가 얇아지면서 옷감 부분이 줄어들고 레이스 부분의 면적이 넓어져 반투명한 상태로 변화한다. 1580년대 말에는 전체가 레이스로 제작된 러프 칼라와 커프스가 나타나고, 이와 더불어 러프 칼라의 목 뒷 부분을 세우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러프 커프스도 이 시기부터 턱백 커프스와 러프 커프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더블 커프스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정교한 레이스로 제작된 반투명한 러프 칼라와 더블 커프스가 나타나면 1580년대 후기의 복식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590년부터 1591년까지는 기존의 둥근 러프의 앞 중심이 벌어져 목과 가슴을 드러내는 퀴엘리자베스 칼라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커프스에도 앞 시기에 나타났던 더블 커프스가 서서히 사라지고 턱백 커프스로 교체되어 17세로의 복식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칼라의 중심이 벌어지고, 턱백 커프스 혹은 더블 커프스가 나타나면 16세기 말기의 복식으로 시대를 추정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1592년부터 1603까지 러프 칼라는 퀴엘리자베스 칼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대부분의 커프스는 턱백 커프스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퀴엘리자베스 칼라 뒤로 커다란 나비형의 베일이 추가된 것인데, 이는 여왕의 영웅화된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나비형 베일과 퀴엘리자베스 칼라, 턱백 커프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로 시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흰색의 러프 칼라와 커프스는 16세기 영국 복식의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특히 러프 칼라, 커프스, 스커트의 리드미컬한 주름의 반복은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복식 요소로서 러프 칼라와 커프스의 미시적인 변화에 대한 고찰 및 분석은 작품 제작 년대가 불분명한 16세기 후반 초상화의 년대 추정 및 16세기 후기 복식의 미시적 변화과정을 관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동시대의 다른 유럽 국가들 사이에 나타난 러프 칼라와 커프스의 차이를 복식 변화와 더불어 고찰한다면 국가별 복식의 발전에 따른 디테일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모건, 케네스. (1984). *옥스퍼드 영국사*. 영국사연구회 옮김 (1994).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혜령. (1986). *중세 말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칼라 형태에 대한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수정. (1988). *세익스피어 희곡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과 무대의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수정. (2000).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내재된 복식 요소의 상징성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3(1), 73-87.
- 빈, 막스 폰. (1996). *패션의 역사 I*. 이재원 옮김 (2000). 서울: 한길아트.
- 서머셋, 앤. (1991). *제국의 태양 엘리자베스 1세*. 남경태 옮김 (2005). 서울: 들녘.
- 송설옥. (1998). *복식에 나타난 칼라의 구성적 특징: 근세, 근대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선미, 배수정. (2002a). 현대패션에 나타난 러프 칼라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6(4), 32-45.
- 윤선미, 배수정. (2002b). 러프 칼라의 유형 고찰.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 12(1), 40-56.
- 허구생. (2004). 튜더 왕권의 이미지-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12(1), 173-196.
- Arnold, J. (1988). *Queen Elizabeth's wardrobe unlock'd*. Leeds: Maney and son Ltd.
- Arnold, J. (1995). *Patterns of fashion: 1560-1620*. London: Drama book.
- Ashelford, J. (1988). *Dress in the age of Elizabeth I*. London: B. T. Batsford Ltd.
- Badawi, M. M. (1981). *Background to Shakespeare*. London: Macmillan press.
- Boucher, F.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 Ferguson, W. K. (2006). *The Renaissance in historical thought*.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assner, J. (1963). *Introducing the drama*. New York: Holt, Reinhard and winston.
- Georg Pencz. (2010, May 13). *Wikipedia*. Retrieved August 30, 2010, from <http://en.wikipedia.org>
- Harris, J. (ed.). (1993). *5000 years of textile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 Hearn, K. (ed.). (1995). *Dynasties: Paintings in Tudor and Jacobean England 1530-1630*. London: Tate publishing.
- Hentzner, P. (1892). *Travels in England during the reign of Queen Elizabeth*. London: Cassell & Co.
- Norris, H. (1997). *Tudor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r.
- Strong, R. (1969). *The English icon: Elizabeth and Jacobean portraitu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 Weir, A. (1998). *Elizabeth the Queen*. London: Vintage.
- Wilcox, R. T. (194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Ltd.